



#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 5주 만에 100만명 관람

순천만국가정원 어린이날 연휴 14만명 방문

지난달 문을 연 순천만국가정원이 개장 5주 만에 누적 관람객 100만명을 넘겼다.

순천시는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순천만국가정원 관람객은 100만510명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국가정원은 개장 첫 주 21만명의 관람객을 맞이한 데 이어 굿은 날씨였던 어린이날 연휴(3-6일)에는 14만명의 관람객을 기록했다.

어린이날 전날인 4일에는 하루 최대 관람객인 7만6000명을 모으기도 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을 내걸고 정원에 인공지능(AI), 애니메이션을 접목했다.

방문객들은 4차원(4D) 기술로 씨앗을 찾아 떠나는 '시크릿 어드벤처'를 즐기고 인기 애니메이션 '유미의 세포들' '두다다쿵'의 캐릭터를 직접 체험했다.

우주선 모양의 '스페이스 브릿지'와 '스페이스 허브' 등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들도 인기를 끌었다. 어린이날 연휴에는 광활한 '정원 놀이동산'을 찾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순천시는 올해 처음 '애니벤저스 캐릭터' 행렬을 선보였다. 행렬에서는 24개 순천 읍면동 캐릭터와 순천만습지 생태계 동·식물을 만날 수 있다.

밤 2시간 동안 정원을 관람하고 수상 행렬을 즐기는 '나이트 가든 투어'는 시범 운영 첫 달 전량 매진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국가정원 '보는 정원'에서 '즐기는 정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며 "다가오는 여름에는 물놀이터와 개울길 광장 등 시원한 여름 정원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니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가 올해 처음 선보인 '애니벤저스 캐릭터 행렬'이 순천만국가정원을 누비고 있다. <순천시 제공>

국가정원에 인공지능+애니메이션 접목 4차원 시크릿 어드벤처·두다다쿵 캐릭터 체험 상상력·호기심 자극...가족 관람객 줄이어



## 순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협력체 출범

대학 등 14개 기관 협력체계 구축 지역 특색 담은 교육 모델 발굴

순천시의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시와 지역 협력체가 공동 노력을 결의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교육발전 특구를 위한 지역 협력체 출범식 개최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여러 기관이 지역 주체가 되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선정된 지역은 3년간 최대 30억원에서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공모 신청은 오는 6월30일까지이며 7월 말 확정될 예정이다.

새로 출범한 지역 협력체는 순천시장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고등학교, 기업, 교육단체 등 지역의 14개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지역 협력체는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역 기업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천시민의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돌봄 교육 및 초중고에 순천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순천시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교육발전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순천시장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7일 노관규 순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시 교육발전 특구를 위한 지역 협력체 출범식이 열렸다. <순천시 제공>

지역 협력체는 순천시장과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대학, 고등학교, 기업, 교육단체 등 지역의 14개의 대표들로 구성됐다.

지역 협력체는 교육발전 특구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지원하고 공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지역 기업 및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협약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기획서 마련 ▲교육 발전전략 수립 ▲지역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및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순천시민의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발굴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동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돌봄 교육 및 초중고에 순천의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순천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순천시를 비롯한 유관단체들과 함께 노력해 교육발전특구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순천시장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시장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관은 이어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기회발전 특구와 순천대글로벌 30 지정 등과 연계하여 교육발전특구에서도 이러한 문화콘텐츠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내고 지역의 기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출범식에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중앙정부 정책의 하나로 미래 고부가치 산업인 문화콘텐츠 사업을 순천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이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100년 된 고흥 토지·임야대장 한글 변환

내년부터 3년간 연차별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고흥군이 100여 년 전 만들어진 구 토지·임야대장의 한글과 디지털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고흥군에 따르면 구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한자로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지적공부다.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토지 표시 사항 변동 조사 등 민원 발급 및 토지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왔다.

특백으로 발급해온 구 토지대장은 선명도가 떨어

어져 식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혼재돼 조상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민원 및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활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임야대장 31만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하고 2025년부터 3년 동안 연차별 한글화로 변환하는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j@

## 여수경찰, 치안 파트너와 합동 순찰



여수경찰 '수사 파트너십 포럼' 회원들과 여수경찰·전남경찰청 직원들이 최근 밤 시간대 치안 순찰 활동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경찰 제공>

수사 파트너십 포럼 22명 위촉

여수경찰이 수사 참여치안 협의체인 '수사 파트너십 포럼'을 만들고 본격적인 치안 활동에 나섰다.

여수경찰은 최근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과 학동 유희가와 범죄 취약지역을 찾아 치안 순찰 활동을 벌였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지난달 25일 '여수경찰 수사 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한 이후 처음 진행됐다.

포럼은 참여치안 강화를 위해 경찰 협력·유관단체 22명을 회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포럼 회원과 자율방범대 연합, 여수경찰 수사·형사·범죄예방대응과,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이 활동에 참여했다.

포럼 회원들은 앞으로 수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내고 수사 정책 홍보, 암수범포 발굴, 범죄 피해자 보호 연계 요청, 범죄 다발 지역 정보 제공 등 협력 치안 활동을 하게 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여수시 '섬의 날' 유치 위해 주민 의견 듣는다

23일까지 찾아가는 간담회 관광객 참여 행사 기본계획 수립

2026세계섬박람회를 여는 여수시가 같은 해 '7회 섬의 날' 국가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민과 머리를 맞댄다.

여수시는 오는 23일까지 한 달 동안 섬이 많은 읍·면에서 '섬의 날' 국가 행사 유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8일 밝혔다.

'섬의 날'은 매년 8월8일 열리는 법정 기념일이다. 이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정됐다. 국가 행사 개최지는 해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여수시는 2026년 섬 박람회(9월)를 열기 한 달 전에 '섬의 날' 국가 행사를 유치해 섬박람회 분위기를 돋울 예정이다.

섬의 날 행사에서 섬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행사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세울 계획이다.

여수시가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추진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는 섬 주민과 섬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했다.



여수시가 지난달 24일 삼산면에서 '섬의 날' 국가 행사 유치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여수시 제공>

간담회는 지난달 삼산면을 시작으로, 8일 화정면, 23일 돌산읍 등지에서 열린다.

여수시는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섬의 날 행사 기본방향과 참여 행사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여수시는 섬의 날 행사 기본계획을 세운다. 다음 달에는 한국섬진흥원과 사단법인 한국섬재단을 찾아 섬 전문가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다. 계획을 세운 뒤에는 내년 상반기 중 섬의 날 유치 공모에 참여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7회 섬의 날 행사 유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홍보뿐 아니라 여수시 섬 정책 발전과 섬 주민들의 자긍심이 우뚝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탄탄하게 행사 계획을 수립해 행사 유치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광양시, 취약계층 실내 체험 꾸러미 지원

17일까지 복지시설 신청 접수

광양시가 오는 17일까지 고령자·장애인·어린이 등을 위한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어르신 등 체험 활동 건강꾸러미' 지원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경로당,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광양시는 지난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왔다. 올해는 도비 40%, 시비 60% 비중으로, 2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건강꾸러미는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 경제체가 생산한 제품들로 구성했다.

무더위 등으로 실외 활동이 줄어든 취약계층의 실내 체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육식물 심기 체험, 방향제 만들기 등으로 꾸러미를 마련했다.

광양시는 누구나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유튜브와 전남 대표 농수산물 쇼핑몰 '남도장터'(jnmall.kr) 등에 제작법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17일까지 광양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를 찾거나 전자 우편(kimsunheok@korea.kr)으로 신청서, 활동계획서 등을 내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과(061-797-3555)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건강꾸러미 구매 비용 중 1인당 최대 3만원을 지원받는다. 꾸러미는 '남도장터'에서 사면 된다.

이달 현재 '남도장터'에 등록된 체험 활동 꾸러미 종류는 228개이다. 광양시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제체 4개소와 예비 인증 경제체 1개소의 체험 활동 꾸러미 상품 21종을 등록해 판매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